http://dx.doi.org/10.35704/YJH.62.1

「원천강본풀이」의 공간과 공생적 생태원리

권복순*

- 목 차 -

I. 들머리
II. 이원적 세계구조
III. 공간의 역동성
IV. 인세 여정의 속뜻
V. 마무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원천강본풀이」 주인공 오늘이의 여정에서 공간의 특징을 추출하여 생태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오늘이는 시간을 관장하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활동담에서 시간보다 공간이 더 큰 몫을 차지한다. 우주적 차원에서 세계는 신성한 본보기인 원천강과 모방의 세계인 인세로 구분된다. 인세는 다시 원천강을 분기점으로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신성한 본보기인 원천강이 수직적 질서하에서 상위신이 하위신에게 내린 명에 의해 조성된 세계라면 인세는 수평적인 질서하에서 오늘이를 비롯하여 인세의 다양한 존재들이 연대하여 인세에서 신성한 본보기를 재현하는 것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이 활동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공통점은 자율적 의지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오늘이는 여정에서 만난 다양한 존재들과 상호소통을 통해 서로의 목표를 이룰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공생적 생태원리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목표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목표를 이루도록 해 준 것이다.

주제어 : 공간적 특징, 신성한 본보기, 모방의 세계, 전이 공간, 공생적 생태원리

I. 들머리

오늘은 하루를 나타내는 시간 단위이다. 오늘이가 사계절의 신으로 좌정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모여 사계절을 이루는 신화 원형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오늘과 사계절의 관계가 신직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라면 공간은 주인공을 통해 신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사계절의 신이 되었는가에 대한 신직의 당위성에 관심을 가지고, 사계절의 운행 원리를 구명하는 데 있어 공간의 특징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간 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활동 배경인 원천강을 중심으로 천계와 인세의 공간을 통합적으로 살핀 논의는 드문 실정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신의 근본을 풀이한 내력담이면서 원천강은 특정 장소의 이름이다. 이 본풀이는 조사 당시만 하더라도[1] 굿의 현장에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본풀이가 굿의 현장에서 심방의 가창으로 불릴 때, 구술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술 서사의 단순한 형식과 잊히기 어려운 영웅적 인물이 등장할 때 전승의 원동력

1) 박봉춘이 구술한 「원천강본풀이」 자료편 <上>은 1937년 6월, 연구편 <下>는 1938년 10월에 일본 학자에 의해 채록되고 간행되었다. 원제목은 「원텬강본푸리(袁天綱本解)」로 되어 있으며 자료 수집 때 무녀의 제사(祭祀, 즉 굿 때에 부르는 노래가락(神歌)과 축사(祝辭)를 수록한 일종의 자료집으로 규정했다. 현재에는 전승하지 않아 현용준에 의해 특수본풀이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록에서 보듯이 조사 당시만 하더라도 「원천강본풀이」는 제주도신가(濟州島神歌)로서 무당에 의해 굿의 현장에서 구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赤松智城·秋葉 隆沈공저, 雨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硏究』上, 동문선, 1991, 5쪽)

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신직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사 장치가 경계가 뚜렷한 공간에 있음을 주목하여 엘리아데의 성(聖) 대 속(俗), 닫힌 공간 대 열린 공간의 대비를 통해 공간의 특징에 따른 인물들의 인식변화와 실천행위에 주목하여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굿을 펼친 공간은 일반적으로 경계를 지어 속(俗)의 공간을 성(聖)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굿은 굿의 목적에 따라 굿에서 모실 신이 선택되고 심방은 무가를 구송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요소가 대중들에게 굿의 주인공에 대한 본풀이를 함으로써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다. 모든 성스러운 공간에는 성현, 즉 성스러운 것의 돌연한 출현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특정한 영역이 주위의 우주로부터 분리되고 질적으로 다른 곳이 된다. 신현이 어떤 장소를 정화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 장소를 위로 열리게 하여 하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가는 역설적 이행점으로서 천상계와 교류함에 의한 것이다.[2)]

「원천강본풀이」는 오늘날 더 이상 굿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텍스트에서 인세와 경계가 지어진 다른 공간들, 원천강, 하늘과 같은 서로 다른 성격인 성(聖)의 공간이 존재한다. 원천강은 '별당을향하야그주위에는만리장성을싸엇고원문에는문직이가파수를보고잇는' 곳이며 하늘은'너를나흔날에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원텬강을직키하고하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이 부모의 말을 통해 옥황상제가 있는 공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두 공간은 인세와 다른 별세계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신화는 원형적 상상력이 무한하게 녹아있는 이야기로서 인간을 둘러싼 사물, 자연현상. 우주의 질서에 대해 인간이 풀 수 없는 의문을 초월자인 신에 기대어 풀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형적 상상력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융이 원형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한 반면, 엘리아데는 하느님이 태초에 행한 신성한 본보기라 하였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인식은 상당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엘리아데가 말하는 천상의 신성한 본보기로서 원형은 융이

2) M.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聖)과 속(俗)』, 한길사, 1998, 59쪽.

원형을 규정한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신성한 본보기[3]인 셈이다.

「원천강본풀이」는 형식의 반복적 패턴과 더불어 내용상 풍부한 상상력 및 서사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서 자료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4] 꾸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은임[5]은 지상계의 존재인 오늘이가 선계인 원천강의 외부세계의 도움을 받았듯이, 오늘이가 도중에서 만난 선녀의 입장에서 외부자인 오늘이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의미를 상보성으로 특징지었다. 권복순[6]은 「원천강본풀이」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우주 기원 신화로서 이 신화가 발생한 원시 애니미즘 사고에서 자연과 인간은 미분화상태에서 분화상태로 이행하는데 제목은 이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미분화상태에서 분화상태로의 이행이라는 주장은 세계간의 특징을 상보성이라 본 고은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신호림[7]은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삶의 총체적 궤도를 하나의 공간으로 압축하여 파악하여 시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존재이며 제주도의 무속에서 원천강이라는 서책의 근원을 풀어내기 위해 호출한 '전달자'이자 '번역자'의 존재로 보았다. 현재 「원천강본풀이」전승이 두 편의 이본에 불과한 구전서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본을 두루 포괄한 수 있는 성과라는 점에서 연구의 진전을 이루었다.

한편 시·공간적 배경을 주목한 조홍윤[8]은 「원천강본풀이」 오늘이의 신직을 탐구함에 있어 니체의 생철학적 인식론을 도입하여 시간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오늘이의 여정은 각자 멈추어진 시간을 움직이게 하는 서사로

3) 임재해, 「설화의 상상력과 민족의 창조력」, 『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문화의 상상력-』, 경상대인문학연구소 엮음, 백의, 1994, 105쪽.

4) 「원천강본풀이」는 1930년대 赤松智城, 秋葉隆이 채록한 西歸男巫 박봉춘본이 있고 1950년대 진성기가 편한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자료가 있다.

5)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0, 201~220쪽.

6)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56권, 배달말학회, 2015, 167~194쪽.

7) 신호림,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신격(神格)의 특징(特徵)과 의미(意味)」, 『어문연구』 50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113~133쪽.

8)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남도민속연구』 제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400~436쪽.

서 관계의 확장과 인식의 극복을 통하여 그 자체로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준다고 보았다. 박시언[9]은 시간보다 공간 이동이 오늘이의 여정에서 주요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찾아 바다를 건너갔지만, 그곳에 바로 답이 있지 않고 천(天)으로 생각했던 공간이 지(地)와 다름이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천(天)과 지(地)의 역학관계이자, 바로 '천(天)과 지(地)의 역설(逆說)'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오늘이의 '통합'은 공간 이동과 함께 원천강에서 본 사계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공간의 역학과 역설의 구조를 오늘이의 신직과 관련하여 풀어냄으로써 진일보한 성과를 보였다.

허남춘[10] 시공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서사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인간과 동식물이 소통하여 서로 돕는 관계를 보여주고, 인간계와 초월계가 소통하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인간과 자연 만물이 대등하고 안과 밖의 세상이 대등한 화합을 이루는 모습에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여 한계에 다다른 인류를 구원할 해답을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은 본 연구에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이 밖에도 운명관 연구[11] 현대적 전승[12]이나 교육 분야[13] 등 연구가 이어졌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원천강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통합적 관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의미 있는 연구 진전을 이루었지만 본풀이의 궁극적인 목표인 신직의 당위성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직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9) 박시언,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매개와 통합의 공간적 구조의 의미 연구」, 『구비문학연구』 67권, 한국구비문학회, 2022, 5~52쪽.

10) 허남춘, 「<원천강본풀이>의 시공간적 의미와 사유체계」, 『한국문학연구』 65권, 한국문학연구소, 2021, 39~71쪽.

11) 류정월,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구복여행> 설화와 대비를 통하여」, 『韓國古典硏究』(4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45~271쪽.

12) 김유진,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375~402쪽.
정제호, 「<원천강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 요인 분석 – <구복여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77), 동양고전학회, 2019, 119~144쪽.
김기정, 「<원천강본풀이>에서 드라마(drama)로—관객층에 따른 플롯과 캐릭터 각색」, 『한국극예술연구』(76), 한국극예술학회, 2022, 131~173쪽.

13) 고은영, 「교과서 수록 <오늘이>에 대한 소고(小考)」, 『영주어문』 47권, 영주어문학회, 2021, 209~230쪽.

위한 효과적 장치가 공간에 있음을 주목하여 주인공의 여정에서 엘리아데의 성(聖) 대 속(俗), 닫힌 공간 대 열린 공간의 대비를 통해 공간의 특징에 따른 인물들의 인식변화와 실천행위에 주목하여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Ⅱ. 이원적 세계구조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이는 신관인 아버지가 다스리는 원천강을 다녀온 후 인세를 변화시킨 주인공이다. 신화에서 이야기되는 성스러운 것의 세계로의 침투는 실재로서 세계를 정립시킨다. 신화는 어떤 실제가, 그것이 총체적 실재이든 우주이든 혹은 단지 하나의 단편, 즉 섬이나 식물 종이나 인간의 제도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말한다는 것은 그 사물을 해명하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그들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다.[14]

「원천강본풀이」는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이 있는데, 원천강에 대한 내용이 달라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전자는 신의 근본을 풀이한 내력담이고 후자는 원천강이라는 제목에 근거하여 점서 혹은 점사를 치는 직업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채록 당시 제주도 신가로 불렸던 점을 감안하여 신직내력담이 뚜렷하게 나타난 박봉춘본[15]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오늘이 여정의 공간은 크게 성(聖)과 속(俗)의 대비가 뚜렷한 이원적 세계구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聖)의 세계는 원천강이며 속(俗)의 세계는 인세이다.

1. 신성한 본보기

원천강은 성(聖)의 공간으로 인세를 위한 신성한 본보기로서 보여주는

14) M.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聖)과 속(俗)』, 한길사, 1998, 109쪽.
15) 赤松智城·秋葉 隆沈 공저, 雨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硏究』 上, 동문선, 1991.

세상과 들려주는 말로 가시화된다.

1) 보여주는 세상
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
곳곳마다문을열어보았다
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엇다

2) 들려주는 말
구경을끗치고,오날이가
또다시온길을돌아갈여할째
거번의모든부탁을말하니,부모하는말이
장상이와매일이는부부가되면
만년영화를누릴것이요
련화동은옷가지의끗을짜서
초면하는사람의게주어버리면
다른가지에도만발할것이며
대사는야광주를일개만쿨엇스면할태인데
넘우욕심을만히가져서,삼개를물어바리니
룡이못된것이다그러니초면자에게
두 개를버터서주어버리면,곳룽이되리라하고
너도그야광주들과련화를갖으면신녀가되리라

신성한 본보기인 성(聖)의 공간은 오늘이를 통해 보고, 듣는 시청각 감각을 통해 구현된다. 보여주는 세계가 오늘이 부모가 신관의 신분으로 옥황상제[16]가 명한 천상의 신성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에 있다면, 들려주는 말은 아버지로서 딸인 오늘이를 위해 인세에서 부탁받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16) 천계(天界)에 거주하며 최고의 존재로서 숭배되고 있는 신령으로는 하나님·옥황상제·제석천존(帝釋天尊)·불보살(佛菩薩)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님은 천주(天主)를 의미하고 옥황상제와도 동일시된다. (赤松智城·秋葉 隆沈 공저, 雨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硏究』 下, 동문선, 1991, 78쪽)

오늘이 부모의 역할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성(聖)과 속(俗)의 결핍을 충족할 수 있다. 오늘이의 부모가 원천강에 온 것은 신관으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신관의 임무는 우주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원뎐강을직히라고한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여기잇게되엇스나"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신인 오늘이 부모로서는 상위신인 옥황상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옥황상제가 오늘이 부모에게 원천강을 지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원천강은 신관이 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聖)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관의 임무는 원천강을 가꾸기보다는 지키는 데 주목적이 있는 셈이다. 오늘이가 원천강을 지키는 신관과 달리 우주를 다스리는 사계절의 신으로 좌정한 것은 신관과 다른 차원의 신으로서 원천강을 모델로 사계절의 운행원리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뚜렷하다.

들려주는 말은 보여주는 세계와 달리 오늘이의 신직 좌정에 있어서 인세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선 장치로 작용한다. 오늘이가 부모국인 원천강을 스스로 찾아옴에 따라 부모인 신관은 오늘이를 위해 인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전해주는 과제를 안게 된다. 원천강에서 부녀간의 상봉은 사계절 신의 부재로 인해 사계절 신을 임명해야 하는 천(天)의 문제와,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지(地)의 문제를 두루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원천강에서 부녀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옥황상제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신관은 오늘이에게 인세와 다른 별세계인 '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 곳을 보여줌으로써 신직의 임무를 완수한다. 또한 오늘이가 인세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려줌으로써 오늘이 부모는 성(聖)과 속(俗)의 문제 해결자인 동시에 천(天)과 지(地)를 이어줄 매개자로 존재한다.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질서정연한 사계절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세의 문제해결자로서 거듭난 것은 사계절 신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계절의 운행은 천(天)이나 지(地)가 분리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천지(天地)가 소통하여 균형을 이룰 때 사계절의 운행원리가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이에게 성(聖)의 세계인 '하늘과 원천

강'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세계라면 '원천강과 인세'는 전언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부모국인 원천강은 하늘과 인세를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 작용한다.

2. 모방의 세계

속(俗)의 공간에서 모방의 세계는 인세를 위한 문제해결의 공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속(俗)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聖)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돌아오는길에매일이를맛나
부모국에서들은대로말하니
장상이잇는곳을몰은다하거늘
내가데려다주마하고,갓치가다가

대사를맛나서도그사실을말하니
야광주둘을바터서,오날이에게주어두고
즉서룡이되야, 뢰성벽녁과아울너승텬하얏다
다음에연못낭을맛나그런말을하니
웃가지를썩썩어서즉시오날이에게주다
그러니가지가지마다고흔꼿이피여서
아름다운향내를 뿜내게되엿다

다음에장상이를 만나니,매일과장상이
부부가되여차세상에만년영화를누리고

오날이는백씨부인을맛나서
야광주하나를선사하야,감사의뜻을표한후
옥황의신녀로화하얏다

이 세계는 부모국인 신성한 본보기인 원천강을 모델로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부모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 주고 이를 실천하는 객체들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가는 세계라는 점이 특별하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찾으러 떠난 여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에서 원천강을 다녀온 후 여러 존재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존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전환한다. 주체로 전환함에 따라 인세의 존재들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특히 사계절의 신이 된 당위성은 식물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나는겨울에는움이쑤리에들고
정월이나면몸중에들엇다
이월이되면가지에가고,삼월이나면꽃이피는데
상가지에만피고,달은가지에는아니피니

웃가지를썩혀서즉시오날이에게주다
그러니가지가지마다고흔꽃이피여서
아름다운향내를쏨내게되엿다

연꽃의 문제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없음에 있다. 오늘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일러주자 곧바로 실천함으로써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식물의 대표격인 연꽃이 오늘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꽃을 피운 과정을 통해 오늘이는 사계절 신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신직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신호림[17] 은 오늘이가 성의 세계를 속의 세계로 퍼뜨리는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오늘이는 전달자로서 단순히 원천강을 베끼는

17) 오늘이는 인간에게 運命에 대한 지식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가 시간이나 運命의 신으로 좌정하는 것에 있지 않다. 袁天綱이라는 서책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근본'을 풀어내는 것이 서사의 핵심이며, 오늘이라는 인물은 이를 신화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주동 인물일 뿐이다 (신호림,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신격(神格)의 특징(特徵)과 의미(意味)」, 『어문연구』 50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123쪽)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인세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상호 연대를 통해 실천함으로써 범우주 차원에서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실천 행위자라 할 수 있다.

오늘이가 인세에서 만난 존재들을 살펴보면 인간, 동물과 식물, 그리고 선녀가 있다. 모두 오늘이의 조력자라 할 수 있는데 선녀만이 천상의 존재로서 원천강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인간인 매일이와 장상이는 오늘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의인화한 신화 원형적 사고를 반영한다.[18] 이들은 인세에 있지만 각각 고립되어 있어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오늘이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됨으로써 부부가 되어 세상에 만년 영화를 누리고 세대를 이어갈 존재로 전환한다.

다음으로 동물인 대사(大蛇)가 있다. 대사 자체도 시간의 원형성을 내포하고 있다. 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듯이 뱀도 허물 벗기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대사(大蛇)의 문제는 승천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들은 전언을 들려줌으로써 야광주 두 개를 버리고 용이 되어 승천한다. 야광주는 '밤에 빛을 발하는 구슬'로서 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대사(大蛇)가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것은 우주 질서와 관련이 있다. 야광주 세 개를 가지고 승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상상력은 일월조정신화인 「천지왕본풀이」의 첫머리에 나와 있다. "대소별왕이 태어날 때 옥황상제 천지왕이 꿈을 꾸었는데 일광 둘, 해와 달 둘을 내보내니 인간 백성이 낮에는 해가 둘이 비쳐 뜨거워 낮에 천명 죽게 되고, 밤엔 달도 둘을 내 보내니 인간 백성 얼고 추워 죽게 될 때에……"[19] 에서 보듯이 우주의 균형이 깨어진 인세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이가 원천강에 다녀옴으로써 인세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인세에서 오늘이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원천강은 어떤 곳인

---

18) 신화, 곧 미토스는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모든 이야기, 곧 모든 문학은 한결같이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신화는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 분화하지 않은 상태의 원초 형식이다. 따라서 그 활동한 상상력은 그 어떤 문학의 그것보다도 깊고 넓어서 상상력의 원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수업, 「우리 신화와 상상력」, 『상상력의 자리찾기 - 한국문화의 상상력-』, 경상대인문학연구소 엮음, 백의, 1994, 40쪽)

19) 『제주도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년, 15쪽.

가? '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 곳이다. 오늘이만 그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이가 인세의 인물과 다른 존재임을 나타낸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다녀오기 전과 후에 인세의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로 바뀌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천상의 신성한 본보기[20]를 모델로 우주 질서를 다스리는 신으로서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속(俗)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聖)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성(聖)과 속(俗)의 공간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원천강은 하늘과 인세를 매개하여 준다는 점에서 특수한 공간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원천강을 매개로 하늘과 원천강, 원천강과 인세의 공간적 특징이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전자의 세계는 오늘이가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축된 곳으로 결과 및 질서 그리고 복종과 의무 등이 지배하는 세계인 반면 후자의 세계는 기존의 세계를 해체하여 재구축하는 세계로서 그 과정을 통해 오늘이를 비롯하여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연결망을 구축하여 사계절의 운행 원리에 참여하여 공통의 목표를 이룬다는 점에서 생태학적으로 공생관계를 이룬다.

동물 보은담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태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동물보은담에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보다 생태학적으로 더 긴요한 관계 곧 생명을 서로 살려주는 '살림의 관계'를 이룬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곧 인간 중심적인 독점 논리의 정복관계라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자연 중심적인 생명그물 논리의 생태학적 공생관계이다.[21]

---

20) 원천강을 성(聖)의 신성한 본보기로 보는 것은 앞의 논문(박시언:44쪽)에서 저승으로 보는 것과 거리가 있다. 제주도 신화에서 저승 관념은 「이공본풀이」, 「차사본풀이」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악을 징치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원천강은 부친탐색담과 신화소인 꽃이 있다는 점에서 「이공본풀이」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 요소만 제외하면 저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옥황상제가 오늘이 부모에게 신관의 임무를 맡긴 것은 오늘이에게 사계절의 운행원리를 보여주는 것에 있지만 「이공본풀이」의 원강도령은 서천 꽃밭을 다스리는 꽃감관으로서 이때 꽃은 원강도령의 신능을 펼칠 수 있는 도구로서 환생이나 악의 무리들을 징치하는 것이 주기능이다.

21) 임재해, 「동물 보은담에 갈무리된 공생적 동물인식과 생태학적 자연관」, 『구비문학연구』 18권, 한국구비문학회, 2004, 231~232쪽.

Ⅲ. 공간의 역동성

오늘이는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단위이다. 오늘이가 아버지를 찾아 사계절의 신으로 좌정한 것에서 오늘과 사계절의 신화 원형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오늘이라는 추상적 시간 단위가 모여 사계절이 되는 자연의 운행 원리를 떠올리면 시간의 개념은 신직의 성격을 규정하고 공간은 신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공간은 시간과 서로 얽혀 있는데 오늘이 여정에서 원천강을 분기점으로 인세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전이한다.

1. 닫힌 공간

닫힌 공간은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서 각 존재들을 만난 공간이다. 오늘이가 아버지를 찾으러 떠난 여정에서 만난 존재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원천강이 있는 곳을 모르니 다른 존재에게 물으라고 답한다. 다만 하늘에서 쫓겨난 시녀궁녀만 이 곳을 알 뿐이라는 점에서 인세의 다른 존재들과 차별성이 뚜렷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원천강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존재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인세의 존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공간의 단절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오늘이의 여정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이다. 인세에 존재하는 동물을 비롯한 식물, 인간들은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존재들이다. 오늘이의 여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모든 이야기 중에는 유별나게 그 내용보다는 형식(formula)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군의 이야기들이 있다. 등장인물로 보면 동물담이나 신이담 혹은 일반담이 될 수도 있고, 성질로 보면 소담이나 일반담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군의 이야기는 반복되어지는 형식의 묘미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이야기들과 구별지어 볼 수가 있다.[22] 오늘이를 비롯한

인세에서 만난 존재들은 자신의 정체성은 모른다는 것에 대해 문답의 반복을 통해 강조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간의 단절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시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가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근대에 이르러 만들어진 선적인 외부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니체의 인식론이 이야기하듯 주체의 삶에 밀착되어 인식되는 시간일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서 오늘이가 맞닥뜨린 문제는 시간의 문제인 동시에 그 자신의 삶과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적막한 들에서 솟아난 오늘이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이 태어난 날도 모르는 채로 과거와 단절된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23] 단절의 시공간은 오늘이를 매개로 열린 시공간으로 전환한다.

2.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돌아오는 공간에 해당한다. 오늘이를 만나기 전의 인세는 공간의 단절로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오늘이를 매개로 공간이 열림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열린 공간으로의 변화를 이끌어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오늘이가 부모와 만나기 위해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인 원천강 문 앞에서 문지기와 실랑이를 벌여 문을 열게 한 것에 있다.

> 별당을 향하야그주위에는만리장성을싸엇고
> 원문에는문직이가파수를보고잇섯다
> 문을열어달나하니,그것은누구이냐
> 나는인간세상오날이라는처녀이요
> 무슨연고로이곳에왓는고
> 이것이나의무보국이라허니찾저왓소

22) 조희웅, 「설화의 유형 분류」, 『說話文學硏究 (上) 總論』, 단국대출판부, 1998, 369쪽.
23) 조홍윤 앞의 논문, 415~416쪽.

문을열어줄수업노라
<중략>
박정한문직이야,무정한신인들아
그리웁던어머님아,그리웁던아버님아
오날이는의식적무의식적으로이리말허며
연하야늦겨우니,돌갓튼문직이의 염통에도
눈물의동정이울어낫다
문직이가 부모궁에올나가서,이런사실을주하니
발서부모궁에서도알고잇섯다
그비명허는소래는
부모에게 싸지흘러갓든 것이다[24]

위의 내용은 오늘이가 부모국인 원천강에 도착했으나 문지기의 방해로 원천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다. 오늘이가 눈물로 하소연하니 굳게 닫혔던 공간이 열림으로써 눈앞에 그토록 그리던 별세계가 펼쳐진다. 원천강은 만리장성을 경계로 인세와 구분되어 있는 곳이다. 이 곳 또한 오늘이가 찾아오기 전까지 인세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이로 인해 이 곳도 닫힌 문을 열고 열린 공간으로 바뀜에 따라 인세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신성한 본보기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이는 원천강이나 인세에서 공간의 성격을 변화하게 하는 주도자일 뿐만 아니라 인세에서 만난 존재들과 상호 연대를 통해 존재들의 인식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열린 공간에서도 닫힌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답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늘이가 스스로 떠난 여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듯이 각 존재들도 오늘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존재로 변화한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이를 매개로 공간의 성격이 바뀜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이는 어땠을까에 대한 문답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던 오늘이가 자신의 신직을 깨닫고 인세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옥황의신녀로화하얏다'의 결말을 가져온다.

24) 박봉춘본, 296~297쪽.

오늘이의 여정으로 닫힌 공간이 해체되고 열린 공간으로 재구축됨으로써 공생적 생태계를 이룬 것은 단순하게 공간의 변화를 뜻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세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실천적 행위로 이어진다.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이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적 행위는 생태계를 이루는 각각의 존재들이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정복 논리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생명 그물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계절의 운행 원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들의 상보적 공생관계의 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IV. 인세 여정의 속뜻

인세 여정의 속뜻을 탐구하는 것은 오늘이 활동담의 배경을 이루는 이원적 세계 및 공간의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오늘이의 여정에 대한 의미 탐구는 신성한 본보기와 이를 모방하는 인세에서 공간층위별 존재들의 정체성이 변하는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늘이의 신성한 징표는 탄생담과 신직좌정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옥갓튼계집애가적막한드를에웨로히낫타나니
> 그를발견한차세상사람들이
> 너는어쩍한아해냐믓더라
> 나는강남드를에서소사낫습니다
> 성이무엇이며일음이무엇이냐
> 나는셩명도몰으고아모것도몰음니다
> 그러하니엇 찌하야우금까지살어왓느냐
> 내가강남드를에소사날ᄉᆡ대부터
> 어쩐학조가날너와서
> 한날애를 쌀아주고한날애를덥혀주며
> 야광주를물녀주며,그리저리살녀주니
> 오늘까지무사히살어왓습니다.

오늘이는백씨부인을만나서
야광주하나를선사하야,감사의 뜻을표한후
옥황의신녀로화하얏다

먼저 탄생담[25]을 보면 오늘이는 강남들에서 솟아난 존재로서 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성한 존재이다. 땅에서 솟아난다거나 학과 같은 신성한 동물은 한국의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신화소라 할 수 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한국 남부지역, 특히 제주도 신화의 특징이며 새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신성을 상징하는 징표로 나타난다. 신직좌정담에서 옥황의 신녀가 되었다는 결과담은 탄생담보다 직접적인 신성의 징표라 할 수 있다. 오늘이의 일생 구조에서 신성한 징표가 인세의 초자연적 존재가 관여한 것이라면 활동담은 인세의 존재들이 관여한 것이다. 오늘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은 인세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인간의 생존은 하늘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초월적인 것으로 향하는 출구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다른 말로 인간은 카오스 속에서는 살 수 없다. 저 세상과의 접촉을 한번 잃어버리면 이 세상 속에서의 생존도 불가능하게 된다. 어떤 장소에 정착하여 그곳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의 실존적 선택, 즉 그것을 '창조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우주의 선택을 전제하는 행위이다. 이제 우주는 항상 신들이 창조하고 거주한 모범적인 우주의 모방이며, 그러므로 성스러운 신들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26]

천상의 신성한 본보기에 대한 원형 의식은 북방계 신화인 단군신화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단군은 천부지모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천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건국주다. 환인의

25) 오늘이는 들판에서 솟아나고, 인격인 부모를 둔 이중 출생자로서 제주도 신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탄생을 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오늘이가 솟아난 들판이 신화의 원형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인견화된 부모의 등장은 그 이후 신화의 변화과정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56권, 배달말학회, 2015, 182쪽)

26) M.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聖)과 속(俗)』, 한길사, 1998, 64~65쪽.

서자 환웅이 인세를 탐하자 그의 부(夫)인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어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곳이 태백산에 세운 신시(神市)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환웅은 인간의 몸으로 화하여 웅녀와 결합하여 천신의 혈통을 이어주기에 이른다. 인세에 거주하는 동물신인 범과 곰이 인간이 된 것도 환웅에 의해서이고, 웅녀가 단군을 낳은 것도 환웅이 있음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구전서사인 「원천강본풀이」는 역사성이 있기 마련인데 구전으로 전승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산물로 추정되는 수직적 질서관을 걷어내면 수평적 질서관이 자리잡고 있다. 오늘이와 사계절의 관계는 자식과 부모라는 신화 상징성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이는 자신의 원천인 부모국에 도달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원천강을 보고 혼란한 인세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계절의 운행을 관장하는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으로 좌정하였을 것으로 본다. 오늘이가 하늘에 올라 신녀가 되었다는 신직 좌정담은 북방계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정된다.[27] 이러한 사고관은 수직적인 질서관이 주를 이루는 북방계 신화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오늘이가 사계절의 신이 되는 내력은 수평적 사고관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화생관이 바탕이 되어 있다.

오늘이는 신들의 작업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보다 인간으로서의 이룬 행적이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성한 본보기인 원천강이 수직적 질서하에서 상위신이 하위신에게 내린 명에 의해 조성된 세계라면 인세는 수평적인 질서하에서 오늘이를 비롯하여 인세의 다양한 존재들이 연대하여 인세에서 신성한 본보기를 재현한 것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28] 활동담에서 특히 수평적 사고관이 두드러지는데 오늘이를 주체로 객체들간의 자율적 의지와 실천이 작용하여 인세와 원천강의 직접적인 소통과 원천강을 매개로 하늘과의 간접

27)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모습 연구」, 『배달말』 56권, 배달말학회, 2015, 168쪽.

28) 오늘이 여정에서 함께 한 존재들은 인간과 동식물과 선계 선녀들인데 인간과 자연과 우주 존재를 망라하고 있고 이 존재들이 서로 말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누군가가 위압적이지 않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도 않다. 인간과 동물, 식물들이 대등하고 인간세계 안쪽과 바깥쪽이 대등하게 교유하고 서로 돕고 있다. (허남춘, 「<원천강본풀이>의 시공간적 의미와 사유체계」, 『한국문학연구』 65권, 한국문학연구소, 2021, 67쪽)

소통을 통해 상호소통을 이끌어낸다. 오늘이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동물, 식물, 인간, 우주 간의 생태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공생적 생태원리를 이끌어냄으로써 우주 질서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들도 목표가 이루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 자연의 순리를 거부하고 생태적 위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에서 가이아 복원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이는 들판에서 솟아난 신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소녀의 몸으로 인세에 존재하는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이질적인 집합체들과 복잡한 연결망을 맺고 공통적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신직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이가 사계절의 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계절은 순환과 지속성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순환과 지속성은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이는 신성한 본보기와 모방 세계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인세의 닫힌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바꾸게 함으로써 그 결과 어느 것 하나 배제됨이 없이 인간과 비인간 존재 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순환과 지속성이 가능한 사계절의 질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생태적 위기에 놓인 지구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과학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에서 가이아 이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가이아 가설은 1970년대 제임스 러블록이 그리스 신화 속 대지의 여신의 이름을 딴 가이아라고 명명함으로써 엄청난 대중적 파급력을 불러 있으켰다. 이후 부뤼노 라투르는 가이아 가설이 인류세를 위해 가이아를 재해석하고 재정의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르면 가이아는 모든 생물체와 무생물이 얽혀 있는 임계영역이다. 인간은 역사의 유일한 저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아니며 가이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는 공존을 위해 가이아의 일부이자 '지구에 묶인 자(the earthbound)'로서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과 협상해야 하였다.[29]

가이아와 인류세 개념은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맞이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20세기 이후 서양을 중심으로 대두된 이론이지만 뜻밖에도 아

29) 가이아와 인류세에 대한 정의 및 소개는 송은주, 「인류세에 부활한 가이아:가이아 이름을 재정의하기」, 『인문콘텐츠』 제62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251~270쪽 참조.

득한 옛날 원형적 상상력이 풍부한 구전신화「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인 오늘이 모습에서 가이아의 여신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신화의 주인공인 오늘이는 강남들에서 솟아난 존재이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한국 남부지역, 특히 제주도 신화의 특징이다.[30] 북방계에 위치한 건국신화의 여성주인공들이 남성신들의 주도하에 수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것과 달리 제주도 무속신화의 여성주인공들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주도자로서의 면모가 강하다. 전상신이 된 가믄장아기와 마찬가지로 오늘이는 사계절의 신직을 획득함에 있어서 신능을 발휘했다기보다는 소녀의 몸으로 다른 존재들과 힘을 합하여 각 세계 간의 단절을 허물고 공생적 생태주의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가이아[31]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이아 여신은 사라지고 그 대신 인간중심주의가 자리 잡았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제외한 자연과 동물, 식물 등을 지배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고이다. 그 결과 지구는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사이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져 긴 장마와 극심한 추위로 인해 사계절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문학 분야에서「원천강본풀이」는 오늘날 생태적 위기에 놓인 지구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관련 분야와 더불어 인문학 분야에서 인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환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은 고난과 고난 극복을 통해 신직 좌정이 이루어진다. 고난의 양상을 보면 대개 적대자와의 대결을 통해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기 드물게 우주 기원 신화로서 사계절의 운행 원리를 설명하는「원천강본풀이」는 신직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을 망라한 범우주 존

30) 지중출현 화소는 제주도 삼성신화나 그 밖의 당신화인 송당본풀이, 호계리 본향당 본풀이, 사계리 큰물당본풀이, 한동리 당신본풀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이자 대표 주자인 라투르는 가이아를 두고 동물, 식물을 위시한 생명체뿐만 아니라 암석, 공기, 대양과 같은 무기물이 이루는 연결망, 그야말로 행위자-연결망이라 하였다. (이지선,「인류세 시대, 가이아 명명하기, 대면하기 그리고 기거하기-스텐게르스, 라투르, 해러웨이의 가이아론 또는 가이아이야기-」,『철학』제153집, 한국철학회, 2022, 67쪽)

재들과 집단을 이루어 서로 간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깨달음의 인식변화를 통해 실천적 행위로 이어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측면에서 인문학의 생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태곳적 신화가 살아있던 시절, 오늘이와 인세의 모든 존재들이 원천강을 모델로 공생적 생태원리를 실천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인세를 만들었듯이 오늘날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계에 존재하는 만물과 공생과 연대를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V. 마무리

오늘이는 원천강이나 인세에서 공간의 성격을 변화하게 하는 주도자일 뿐만 아니라 인세에서 만난 존재들과 상호 연대를 통해 존재들의 의식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원천강본풀이」주인공 오늘이 여정에서 공간의 특징을 추출하여 생태원리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오늘이는 시간을 관장하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신직의 신화적 상징성으로 작용할 뿐 활동담에서 공간이 더 큰 몫을 차지한다. 선행연구에서 공간에 주목한 연구가 있으나 공간층위별 성(聖)과 속(俗)으로 이원화하여 본격적으로 생태원리를 구명한 논의는 드문 실정이다.

우주적 차원에서 세계는 신성한 본보기인 원천강과 모방의 세계인 인세로 구분된다. 인세는 다시 원천강을 분기점으로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신성한 본보기인 원천강은 수직적 질서하에서 상위신이 하위신에게 내린 명에 의해 조성된 세계이다. 이 세계는 신관인 오늘이 부모가 있는 곳으로 오늘이 여정의 일차적 목표점이기도 하다. 이 곳은 오늘이의 근본과 신직을 짐작할 수 있는 세계로서 오늘이는 그곳에 가서 보고 듣는 시청각 감각을 통해 정보를 알아낸다. 오늘이가 부모국인 원천강에 간 일차적인 목적은 부모를 찾는 것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계절의 신이 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에 있다.

모방 세계인 인세는 수평적인 질서하에서 오늘이를 비롯하여 인세의

다양한 존재들이 연대하여 신성한 본보기를 모방하여 혼란한 인세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신성한 본보기인 원천강과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오늘이가 부모국인 원천강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해 주고 이를 실천하는 객체들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세계라는 점이 특별하다.

오늘이 여정의 속뜻은 활동담의 배경을 이루는 이원적 세계 및 공간의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오늘이의 여정에 대한 의미 탐구 과정은 신성한 본보기와 이를 모방하는 인세에서 공간층위별 인물들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의문을 해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담에서 인세 존재들의 공통점은 자율적 의지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오늘이는 여정에서 만난 다양한 존재들과 상호소통을 통해 서로의 목표를 이룰 공생적 생태원리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목표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목표를 이루도록 해 준 것이다.

최근 생태적 위기에 놓인 지구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대응책으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에서 가이아 이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가이아와 인류세 개념은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맞이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20세기 이후 서양을 중심으로 대두된 이론이지만 뜻밖에도 아득한 옛날 원형적 상상력이 풍부한 구전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인 오늘이 모습에서 가이아의 여신을 발견할 수 있다. 태곳적 신화가 살아있던 시절, 오늘이와 인세의 모든 존재들이 원천강을 모델로 공생적 생태원리를 실천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인세를 만들었듯이 오늘날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계에 존재하는 만물과 공생과 연대를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赤松智城·秋葉 隆沈 공저, 雨雨晟 옮김,『朝鮮巫俗의 硏究』上, 동문선, 1991,

赤松智城·秋葉 隆沈 공저, 雨雨晟 옮김,『朝鮮巫俗의 硏究』下, 동문선, 1991.

『제주도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2. 단행본

현용준,『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M.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성(聖)과 속(俗)』, 한길사, 1998.

3. 논문

고은영,「교과서 수록 <오늘이>에 대한 소고(小考)」,『영주어문』47권, 영주어문학회, 2021.

권복순,「<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배달말』56권, 배달말학회, 2015.

김수업,「우리 신화와 상상력」,『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문화의 상상력-』, 경상대인문학연구소 엮음, 백의, 1994.

김기정,「<원천강본풀이>에서 드라마(drama)로—관객층에 따른 플롯과 캐릭터 각색」,『한국극예술연구』(76), 한국극예술학회, 2022.

김유진,「[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현대적 변용 양상」,『아동청소년문학연구』(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류정월,「<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구복여행> 설화와 대비를 통하여」,『韓國古典硏究』(4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박시언,「<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매개와 통합의 공간적 구조의 의미 연구」,『구비문학연구』67권, 한국구비문학회, 2022.

송은주,「인류세에 부활한 가이아:가이아이름을재정의하기」,『인문콘텐츠』제62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신호림,「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신격(神格)의 특징(特徵)과 의미(意味)」,『어문연구』50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이지선,「인류세 시대, 가이아 명명하기, 대면하기 그리고 기거하기-스텐게르스,

라투르, 해러웨이의 가이아론 또는 가이아이야기-」, 『철학』 제153집, 한국철학회, 2022.
임재해, 「설화의 상상력과 민족의 창조력」, 『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문화의 상상력-』, 경상대인문학연구소 엮음, 백의, 1994.
_____, 「동물 보은담에 갈무리된 공생적 동물인식과 생태학적 자연관」, 『구비문학연구』 18권, 한국구비문학회, 2004.
정제호, 「<원천강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 요인 분석 – <구복여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77), 동양고전학회, 2019.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남도민속연구』 제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조희웅, 「설화의 유형 분류」, 『說話文學硏究 (上) 總論』, 단국대출판부, 1998.
허남춘, 「<원천강본풀이>의 시공간적 의미와 사유체계」, 『한국문학연구』 65권, 한국문학연구소, 2021.

<Abstract>

The Space in *Woncheon'gang Bonpuri* and the Principle of Symbiotic Ecology

Kwon, Bok-soon

This research intends to explore the ecological principle in *Woncheon'gang Bonpuri* by extra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from the journey of *Oneuli*, its main character. *Oneuli* is a god who is in charge of the time, but her narrative of activities consists more of the space than of the time. On the cosmic level, the universe is divided into *Woncheon'gang*, the exemplary world of the sacredness, and *Inse* (the human world), which is the world of imitation. With *Woncheon'gang* as a turning point, *Inse* again makes a transition from a closed space to an open space.

If *Woncheon'gang*, which is an exemplary world of sacredness, is a world created by the command of a higher god to a lower god under the vertical order, *Inse* shows a distinct difference from *Woncheon'gang* in that various entities of *Inse,* including *Oneuli*, collaborated to replicate in *Inse* the sacred example from *Woncheon'gang* under the horizontal order. The common element which is noteworthy in *Oneuli*'s narrative of activities is that her autonomous intent stands out. Through interactions with various entities she met on her journey, *Oneuli* elicited the principle of symbiotic ecology and not only achieved her own goal, but also helped other entities achieve their goals, too.

Key words : Spatial characteristics, the exemplary world of sacredness, the world of imitation, transitional space, the principle of symbiotic ecology

권복순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52819) 진주시 가호로 44번길 7 102동 701호
전자우편: kbskbs0302@naver.com

이 논문은 2023년 3월 25일 투고되어 2023년 4월 24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 4월 2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